

나성 세계로 교회 (L.A. Global Mission Church)

팀 켈러의 기도 Prayer by Tim Keller

2021 04 25



팀 켈러의 <기도>를 읽고 나서

나성세계로교회 임수정

본인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기에 그분에게 구하기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귀한 교훈을 얻고 새벽기도나 개인기도 시간에 적용해보려 한다. 저자가 본서 77 페이지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도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을 가리킨다.”는 말씀을 주목하게 된다.

본인은 본서에서 다섯 가지 기도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원칙은 기도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겸손으로 자기 합리화나 남 탓, 자기 연민, 영적인 교만 따위를 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주의 뜻이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최선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다. 넷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원칙인데 제 힘으로는 제시한 기도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자비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본인은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은 발견을 통해서 스스로의 기도생활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다짐할 수 있게 되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큰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한 바 있다.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생활에 힘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펜데믹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진정한 기도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